퀜튼 컴슨과 남부의 정신: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와 『압살롬, 압살롬!』을 중심으로

강 지 현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남부의 정신과 퀜튼 컴슨의 분열상
Ⅲ. 남부의 정신과 역사가로서의 퀜튼 컴슨의 면모
Ⅳ.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 부재한다"(*AA* 80)[1]는 데에 있다. 중심인물이 침묵하거나 중심사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포크너 소설에는 중심인물이나 사건을 두고 다양한 인물이 저마다 '제한된' 시점에서 제공하는 상이한 시각들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 살펴 볼 『소리와 분노』(*The Sound and the Fury*, 1929)[2]의 캐디 컴슨(Caddy Compson)과 『압살롬, 압살롬!』(*Absalom, Absalom!*, 1936)의 토머스 섯펜(Thomas Sutpen)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죽으며 누워 있을 때』(*As I Lay Dying*)의 애디 번드런(Addie Bundren), 『내려가라, 모세야』(*Go Down, Moses*)의 캐로더스 맥캐슬린(Carothers McCaslin) 등 포크너의 소설에는 중심인물이 부재하거나 『팔월의 빛』(*Light in August*)의 경우처럼 살인이라는

1) William Faulkner, *Absalom, Absalom!*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0). 이후 본문 인용은 이 판에 의거하며 *AA*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쪽수를 병기한다.

2) William Faulkner, *The Sound and the Fury*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0). 이후 본문 인용은 이 판에 의거하며 *SF*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쪽수를 병기한다.

중심사건이 부재한다. 중심의 부재는 일면에서 불확정성과 모호함을 가중시켜 독자를 당황케 하지만, 역으로 부재하는 중심은 이를 둘러싼 여러 인물의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유도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건을 추동하는 작인이자 '중심'(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부재의 공간을 채우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서로 상충함으로써 부재의 해결이 보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포크너의 소설에는 부재의 회복을 도모하고 중심을 "재구성"(*AA* 96)하려는 여러 등장인물의 이질적인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

화자, 나아가 저자의 목소리가 대화적으로 충돌하는 포크너의 소설은 헤테로글로시아(heteroglossia)의 세계를 드러낸다. 미하일 바흐찐(Mikhail Bakhtin)에 의하면 소설은 언어에 대한 단일 목소리 지배 신화가 붕괴하고 언어와 현실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등장하였다(60). 본질적으로 이질적 목소리의 세계에서 발전한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정체성은 다른 인물의 언어와 대화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포크너의 인물 역시 "다른 사람의 언어와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Bakhtin 349). 이는 저자인 포크너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저자란 무엇인가?」("What is an Author?")에서 밝히듯이 창조자로서의 저자의 권위는 이제 사라지고 저자는 단순히 가변적이고 복잡한 담론의 기능이 되면서, "글쓰기는 글쓰는 행위를 드러내거나 주체를 언어 안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 된다"(102). 그 결과 특권적 지위를 잃게 된 저자의 언어는 등장인물의 언어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고 서로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Bakhtin 263).

우선 포크너 소설의 대화적 성격은 소설의 구조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다수의 장에 다수의 화자가 등장하거나, 동명이인이 등장하고,[3] 성향이 다른

3) 『먼지 속의 깃발』(*Flags in the Dust*)에는 27개의 소장으로 이루어진 5개의 장이, 『팔월의 빛』에는 3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21개의 장이, 『소리와 분노』에는 4명의 화자가, 『내 누워서 죽어갈 때』에는 59개의 내면독백을 펼치는 15명의 화자가, 『압살롬, 압살롬!』에는 4명의 화자가 등장한다. 『소리와 분노』의 부록에 의하면 제이슨(Jason Compson)과 퀜튼(Quentin)이란 이름은 각각 4명이 등장한다. 부자가 모두 제이슨이어서 아버지는 제이슨 3세, 아들은 4세가 되며, 제이슨 3세의 장남과 손녀가 모두 퀜튼이기 때문에, 백치 벤지(Benjy Compson) 장을 처음 접할 경우 벤지가

화자가 동일한 사건을 제각기 전달하는 방식은 다른 목소리를 "곁눈질"(sideward glance, Bakhtin 208)하게 한다.[4] 여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잃고 자신이 창조한 화자와 경쟁하는 저자의 위치는 포크너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크너의 재평가에 일조한 맬컴 카울리(Malcolm Cowley)의 『포터블 포크너』(*The Portable Faulkner*) 서문은 포크너 소설을 이해하는 시금석이 되어 왔다. 카울리는 서문에서 "마치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처럼 ... 포크너가 창조한 (남부의) 전설에 담긴 유기적 통일성"(xxxi)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포크너 작품 선집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창조적 천재로서의 저자를 상정하고 "하나의 채석장에서 나온 대리석 판"(Cowley xiv)처럼 포크너의 모든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실제로 포크너의 각종 대학 강연과 인터뷰, 편지 등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일종의 부록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소리와 분노』(1929) 이후 출판된 「해질 무렵」("That Evening Sun", 1931), 『압살롬, 압살롬!』(1936), 「부록」("Appendix", 1945)은 모두 원작 『소리와 분노』의 불가결한 일부처럼 인식되어 왔다. 특히 『압살롬, 압살롬!』은 불과 몇 달 후 『소리와 분노』에서 자살하는 하버드대학생 퀜튼을 이해하는 데 중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Brooks 336). 그러나 이처럼 이들 작품을 연장선에 놓고 "유기적 통일성"을 추구하려는 태도는 이내 한계를 드러낸다. '위대한 실패작' 『소리와 분노』를 보완하여 총체성을 구현하려는 포크너의 다양한 시도가 오히려 원작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구현함으로써 종국에는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포크너가 다성적인 텍스트를 (저자의) 단일음성으로 전환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모두 포크너가 처한 미국 남부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하나의 남부"(One

---

언급하는 퀜튼이 형인지 조카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4) 『소리와 분노』의 경우 1928년 4월 7일, 1910년 6월 2일, 1928년 4월 6일, 1928년 4월 8일의 순서로 4명의 화자에 따라 전달되는 4개의 "상호 모순적인"(*SF* 86) 이야기는 선행하는 이야기를 뒤엎어 버리는 인상마저 주며 서로 충돌한다. 감각적인 지각의 세계에 국한되어있는 백치 벤지, 추상화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퀜튼, 합리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제이슨 4세로 이어지는 사적세계에서, 공적세계에 위치한 외부 화자 딜지(Dilsey)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4번째 장에 이르기까지 각 장의 화자는 부재하는 중심인 캐디를 저마다의 논리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South)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남부는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이다(Cash xiviii). 이처럼 미국 남부사회가 특유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노예제와 인종문제를 둘러싼 북부와의 갈등에서 비롯한다(Cash 82). 그레이스 헤일(Grace Elizabeth Hale)이 지적하듯이 남북전쟁에서 패한 남부사회는 기존의 인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종개념과 인종주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남북전쟁과 재건기를 거치면서 남부에서 형성된 인종개념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패전 후 남부 백인들이 실패로 끝난 전쟁을 정당화하고 기왕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방어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옛 남부를 이상화하고 절대적인 인종구분선에 바탕을 둔 단일음성적 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패전 후 50년이 지났지만 초혼제(Decoration Day)가 되면 깔끔하게 손질한 회색 군복을 입고 남군 행진곡 "남부"(Dixie)를 들으며 남북전쟁을 재현하는 남부사회에서(*AA* 262), 『압살롬, 압살롬!』의 퀜튼이 선조들의 과거를 어떻게 보편역사로 "재구성"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섯펜의 가족사를 추적하면서 섯펜에서 할아버지 컴슨 대령(Jason Lycurgus Compson)으로, 컴슨 대령에서 아버지 제이슨으로, 다시 퀜튼과 룸메이트 슈리브(Shreve McCannon)로 이어지는 남성들의 이야기는 단적으로 퀜튼이 "아버지처럼"(*AA* 210) 단일음성을 지향하는 배척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남성들의 이야기가 대문자 역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들 목소리 간에 충돌은 없는지 그 대화적 관계를 추적하고, 이와 동시에 타자라는 이유로 배제된 목소리는 없는지 그 회복 여부를 타진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리와 분노』와 『압살롬, 압살롬!』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퀜튼의 행위가 어떻게 남부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남부의 역사를 총체화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몰락한 남부 귀족 출신이면서 동시에 북부 하버드대학생인 퀜튼이 서로 "곁눈질"하는 대화적 면모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단일음성을 추구하는 남부의 정신을 포크너가 과연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남부의 정신과 퀜튼 컴슨의 분열상

『소리와 분노』와 『압살롬, 압살롬!』을 횡단하는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 미국 남부사회의 인종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종개념이나 인종주의 모두 본질적이라기보다는 타인종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흑인은 사람이기보다는 행동양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백인의 이면을 반영한 존재"(*SF* 86)라는 퀜튼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성은 흑인의 실제 성격이라기보다는 백인이 바라는 흑인의 성격, 즉 백인 스스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자질을 흑인에 투사한 것이나 다름없다(Brooks 264). 그 결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백인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흑인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 딱딱한 바퀴자국 한 가운데에 노새에 탄 흑인이 기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담요를 머리에 두른 채 노새 등에 걸터앉은 그의 모습은 마치 울타리와 차도, 아니면 그 자체를 깎아 내어 만든 언덕과 함께 한 폭의 그림처럼 이제 집에 왔음을 알리는 표지판 같았다. 안장도 없이 그의 발은 거의 땅에 닿을 것 같았다....
>
> "이봐, 아저씨, ...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내[퀜튼]가 말했다.
>
> "갑니다요, 나리" ... 나는 25센트 동전을 창밖으로 던졌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사."
>
> "예, 선생님," 그가 말했다. 그는 노새에서 내려 동전을 집어 들고 다리에 문질렀다. "감사합니다요, 젊은 나으리. 감사허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T]here was a nigger on a mule in the middle of the stiff ruts, waiting for the train to move. How long he had been there I didn't know, but he sat straddle of the mule, his head wrapped in a piece of blanket, as if they had been built there with the fence and the road, or with the hill carved out of the

> hill itself, like a sign put there saying You are home again. He didn't have a saddle and his feet dangled almost to the ground. ...
>
> "Hey, Uncle, ... Christmas gift!" I said.
>
> "Sho coming, boss." ... I threw the quarter out the window. "Buy yourself some Santy Claus."
>
> "Yes, suh," he said. He got down and picked up the quarter and rubbed it on his leg. "Thanky, young marster. Thanky." (*SF* 86-87)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향 미시시피 주 제퍼슨(Jefferson)에 가는 퀜튼과 노새를 탄 흑인의 행동은 인종개념의 작동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부에서 "항상 흑인을 의식하고" 흑인을 "흑인이 아닌 유색인종으로 간주해야 한다"(*SF* 86)는 강박에 시달렸던 퀜튼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에 진심으로 흑인 유모 딜지와 그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 것은 노새에 탄 흑인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5센트 동전을 건네받으면서 "선생님," "나리," "나으리"와 같은 존칭어를 연신 내뱉으며 감사함을 표하는 흑인의 행동은 바로 퀜튼이 바라는 흑인의 행동양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퀜튼이 원하는 이상적인 인종관계는 단적으로 말해 "인종간의 예의"라고 할 수 있다(Davis 61). 제임스 데이비스(James Davis)가 지적하듯이 인종간의 예의는 본질적으로 흑인의 열등성을 각인시켜 노예제 시대의 주종관계를 유지하려는 수단이다(62-63). 이로써 흑인성은 무능하고 비이성적이며 열등하고, 반대로 백인성은 이성적이고 우월하다는 인종개념과 인종주의가 강화, 유지된다.

"어린아이처럼 무능하고"(*SF* 87),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흑인의 모습을 통해 "집에 온 듯" 편안함을 느끼는 퀜튼의 태도는 역으로 퀜튼이 인종개념과 인종주의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인종주의에 대한 퀜튼의 각성은 하버드대학교가 위치한 북동부에서의 경험에서 비롯한다. 남북전쟁에서 패한 후 노예제가 폐지되고 흑인 시민권과 투표권이 연이어 인정되자 미국 남부에서는 기존의 인종질서를 재정비하여 백인지배와 흑인종속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흑인에게 "자신의 (열등한) '위치'를 깨닫게" 할

목적에서 강압적인 흑백분리정책이 도입되었고(Woodward 18), 흑인차별과 흑백분리정책은 20세기 전반기에 정점을 이루었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KKK단의 활동을 비롯한 조직적 인종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지만(Woodward 113), 퀜튼은 상대적으로 인종구분선이 미약한 북부에서 인종구분선을 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례로 퀜튼은 흑백이 철저히 분리된 남부사회에서와 달리 버스 안에서 흑인의 옆자리에 앉는다. 그러나 퀜튼은 남부 미시시피 주와 북부 매사추세츠 주 사이에서 분열되고 만다. 퀜튼은 "미시시피 아니면 매사추세츠. 과거엔 존재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매사추세츠 아니면 미시시피"(*SF* 174)라는 말을 되뇌면서 마치 "비몽사몽간에"(*SF* 170) 꿈을 꾸는 듯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미시시피 주의 퀜튼과 서로 충돌하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매사추세츠 주의 퀜튼에게 남부 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환기해주는 인물은 바로 디컨(Deacon)과 블랜드 부인(Mrs. Bland)이다. 우선 하버드대학교에서 각종 허드렛일을 하는 디컨은 "순진하고 외로운 신입생을 안내하는 멘토이자 친구"이다(*SF* 98). 그러나 퀜튼은 한눈에 남부출신인지를 알아보는 디컨의 "젠체하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그러나 역겹다고는 할 수 없는"(*SF* 100) 태도에서 악취를 느낀다. 때론 군복을 입고 초혼제를 비롯 각종 퍼레이드에 매일매일 참여하면서 고된 노동을 회피하는 디컨의 "좀스런 속임수와 위선"(*SF* 98)을 보며 퀜튼은 자유흑인의 등장을 가능케 한 남북전쟁과 패전한 남부의 역사를 통감하게 된다.

자유흑인 디컨이 퀜튼에게 남부의 역사와 남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환기하는 인물이라면 켄터키 출신의 블랜드 부인은 단적으로 말해 북부에 존재하는 남부(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블랜드 부인은 아시리아의 전설적인 여왕 세미라미스(Semiramis)[5]에 비견될 정도로 명예욕과 권력욕이 남다르다. 블랜드 부인은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한 아들 제럴드(Gerald Bland)를 따라 학교 근처에 집을 사서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소위 극성 엄마이다. 블랜드

5) 아시리아의 전설적인 섭정여왕 세미라미스는 바빌론을 건설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미라미스는 남편의 자살을 종용한 니누스(Ninus) 왕을 독살하고 여왕의 자리에 오른다. 로마 역사가 마르셀리누스(Ammianus Marcellinus)에 의하면 세미라미스는 어린 소년을 거세하고 정조대를 만든 최초의 인물로도 유명하다.

부인은 남부태생 여부가 귀족사회의 도덕적 의무(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최소 요건으로 간주하고 아들 제럴드의 교우관계를 일일이 간섭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블랜드 부인이 환기하는 남부의 이미지이다. 마치 "왕과 왕비처럼"(*SF* 91) 행세하는 제럴드와 블랜드 부인은 온통 부도덕함으로 얼룩져 있다. 흑인 유부녀를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편력은 말할 것도 없고 흑인을 계단 아래로 서슴지 않고 던져버리는 제럴드의 무용담을 자랑스레 늘어놓는 블랜드 부인에게 폭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부 귀족 블랜드 가문의 힘은 폭력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결코 "싸움을 반대하지 않는"(*SF* 147) 블랜드 부인처럼, 미국 남부 (귀족) 사회는 폭력적이고 때론 극단적인 인종질서와 계급질서를 용인하는 사회임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퀜튼의 인종주의 각성과 이에 따른 자아 분열상은 특유의 남부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캐나다 출신의 슈리브가 지적하듯이 "(남북)전쟁에서 패한 할아버지와 자유흑인이 우글대는 ... 실체 없는 불굴의 분노와 자부심,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채 (외부와 단절된) 진공상태"(*AA* 289)와 다름없는 남부 정신의 핵심은 남북전쟁과 재건기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패전 후 남부 백인들은 실패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 사회를 인종과 종교, 계급이 조화로운 황금시대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행복한 흑인(happy darky) 담론과 가족주의 대농장제를 아우르는 '옛 남부 신화'(Old South Myth)의 핵심은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향수이다. 미시시피 주 출신의 퀜튼과 매사추세츠 주 하버드대학생 퀜튼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도 잃어버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이다. 퀜튼에게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누이 캐디의 처녀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흑인 여성과는 정반대로 육체적, 성적 특성을 모두 배제하는 '신성한' 숙녀 신화에 갇혀있는 남부사회에서(Hale 105) 여러 명의 남자와 어울리고 급기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허버트(Sydney Herbert Head)와 서둘러 결혼할 수밖에 없는 캐디의 상황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허구적 개념이지만 백인 여성의 순수성과 소극성을 극대화한 남부의 숙녀 신화를 위반한 캐디를 용인할 수 없던 퀜튼은 캐디를 순수했던 유년기의 환상 속에 가두고자 한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퀜튼은 행위보다 언어에 집

착하게 된다. 그 결과 퀜튼은 캐디의 처녀성을 파괴한 달튼 에임즈(Dalton Ames) 대신 자신과 캐디의 근친상간을 언어로 실현하려 한다. "우리가 했다고 말해"(*SF* 149)라며 캐디에게 자신과의 근친상간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퀜튼의 모습은 그가 과거라는 벗어날 수 없는 시간에 갇혀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퀜튼이 잃어버린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행위 대신 언어에 의지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사추세츠 주의 퀜튼과 미시시피 주의 퀜튼 사이의 간극은 행위와 언어 사이의 간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 죽으며 누워 있을 때』의 애디에 의하면, 언어는 "결핍을 메우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행위와 언어의 대립과 간극은 "너무도 벌어져 있어서" 결코 극복하기 어렵다(172-73). 행위와 언어의 간극은 매사추세츠 주의 퀜튼이 길을 잃은 듯 보이는 이탈리아인 소녀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행위는 무엇보다 퀜튼이 캐디 대신 이탈리아인 소녀를 구원하는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퀜튼의 행위는 도리어 "아동 납치"(*SF* 143)로 간주되어 7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미시시피 주의 귀족 출신 퀜튼은 "누구라도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범 청년"이지만, 매사추세츠 주의 퀜튼이 보여준 행위는 실상 어리석고 "극악무도한 행위"(*SF* 146)로 간주됨으로써, 양자간의 간극은 보다 극명해지고, 종국에는 언어가 행위를 대체하게 된다. 이처럼 남부와 북부 사이에서 분열된 퀜튼의 면모는 모두 남북전쟁의 패전을 극복하려는 남부의 독특한 정신에서 비롯한다. 남부인들은 실패로 끝난 전쟁을 정당화하고 "묵언의 우월감"(*SF* 118)과 "일종의 자부심"(*AA* 226)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북부인을 "무식한 하층민"(*SF* 146)으로 간주하고 남부의 역사를 총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남부의 소역사는 보편역사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III. 남부의 정신과 역사가로서의 퀜튼 컴슨의 면모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과거라는 시간에 고착된 퀜튼이 행위 대신 언어의 세계로 침착하는 것은 미국 남부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언어에는 "비현실을 가능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탈바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SF* 117). 바로 이와 같은 언어의 절대적인 힘은 섯펜의 일대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포크너의 다른 작품처럼『압살롬, 압살롬!』역시 작품의 중심인 섯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수의 화자가 각자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섯펜의 과거사를 추적하고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섯펜에서 컴슨 대령으로, 컴슨 대령에서 아들 제이슨으로, 제이슨에서 퀜튼과 슈리브로 이어지는 이야기 전달방식이다. 컴슨 대령의 "믿지 못할 추측"(*AA* 163)에서 시작해 아버지의 논리를 따라 퀜튼과 슈리브에게 전달되는 섯펜의 과거사는 섯펜이라는 개인사를 넘어 남부의 "반박할 수 없는"(*SF* 75) 보편역사로 재창조된다.

섯펜의 과거사는 미국 남부사회의 정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유의식이나 계급의식이 전무했던 웨스트버지니아의 산골마을 출신 섯펜이 "무일푼의 처지에서"(*AA* 7) 자수성가하여 남부사회의 동일자가 되는 과정은 일면에서 타자가 동일자로 동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6] 동일자가 되려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섯펜은 "집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후손"(*AA* 215)을 갈구한다. 우선 섯펜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티(Haiti)[7]에 가게 된다. 컴슨 대령의 지적처럼 "문명과 정글의 중간에 위치한 아이티 섬은 검은 피가 ... 폭력으로 약탈당한"(*AA* 202) 곳으로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다. "폭력과 부정과 유혈,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의 온갖 악마적 욕망을 만족시키는"(*AA* 202) 특별한 공간인 아이티에서 섯펜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지만 실패의 불

6) 필자는 동일자(the same)와 타자(the other) 개념을 인종, 계급, 젠더를 비롯한 각종 차원에서의 이분법적 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7) 아이티는 1804년 탄생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과거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던 아이티가 흑인 공화국이 되면서 아이티는 미국의 대농장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혁명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씨를 동시에 얻게 된다.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흑인 폭동을 진압한 섯펜은 그 대가로 사탕수수 농장주의 딸 윌랄리아(Eulalia Bon)와 결혼하지만 곧 아내와 아들 찰스(Charles Bon)를 저버리고 20명의 흑인 노예를 이끌고 미시시피 주 제퍼슨에 정착한다. 흑인 노예를 소유한 대저택의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던 섯펜은 동일자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제퍼슨의 명망가 콜드필드(Goodhue Coldfield)의 여식 엘런(Ellen Coldfield)과 결혼하여 아들 헨리(Henry Sutpen)와 딸 쥬디스(Judith Sutpen)를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섯펜이 왜 윌랄리아와 찰스를 저버렸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단일음성이 지배하는 남부사회에 동일자로 편입하는 길은 단적으로 말해 백인남성가부장이 되는 길이다. 따라서 혼혈이 의심되는 윌랄리아와 찰스는 섯펜의 계획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섯펜이 추구하는 계획에 결코 포함될 수 없다. 무엇보다 동일자를 강조하는 미국 남부의 정신은 크리올(creole)인 찰스를 흑인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클린스 브룩스(Cleanth Brooks)가 지적하듯이, 찰스를 흑인으로 규정하는 인물은 퀜튼이 유일하다(438). 퀜튼은 섯펜의 대저택에서 찰스를 살해하고 사라졌던 헨리를 직접 대면한 후 찰스의 흑인성을 확신한다.

> 침대, 노란색 시트와 베게, 베게 위에 놓인 노란 빛의 야윈 얼굴, 감고 있는 눈자위로 속이 보일 듯한 눈꺼풀, 이미 죽은 것처럼 가슴 위에 포개있는 뼈만 앙상한 손, 깨어있건 잠들어있건 그가 살아있는 한 사정은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 *그럼 당신은—?*
>
> *헨리 섯펜.*
>
> *그럼 이곳으로 돌아온 지는 얼마나—?*
>
> *4년.*
>
> *그럼 집에 돌아온 건—?*
>
> *죽으려고. 그래.*
>
> *죽으려고요?*
>
> *그래. 죽으려고.*
>
> *그럼 이곳으로 돌아온 지는 얼마나—?*

4년.
그럼 당신은—?
헨리 섯펜.

The bed, the yellow sheets and pillow, the wasted yellow face with closed, almost transparent eyelids on the pillow, the wasted hands crossed on the breast as if he were already a corpse; walking or sleeping it was the same and would be the same forever as long as he lived.
And you are—?
Henry Sutpen.
And you have been here—?
Four years.
And you came home—?
To die. Yes.
To die?
Yes. To die.
And you have been here—?
Four years.
And you are—?
Henry Sutpen. (*AA* 298, 원문강조)

퀜튼은 찰스를 살해한 후 사라졌던 헨리를 직접만난 후 찰스의 흑인성을 확신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는 찰스의 흑인성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이러한 사실은 퀜튼이 헨리와의 대화를 오해해서 잘못 추측했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낸"(*AA* 286) 것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이는 제이슨과 퀜튼이 재구성한 섯펜의 가족사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상상"(I can Imagine, *AA* 72)과 "믿음"(I believe, *AA* 77)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관점주의(perspectivism)와 무관하지 않다. 니체에 의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단순한 체계로

도식화되어있는 인식 주체의 사유에 의해 정립된다. 인식대상은 인식주체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결국엔 사실은 없고 오로지 해석만이 존재하게 된다(300-3). 따라서 찰스의 흑인성은 실체적이라기보다 퀜튼이라는 인식주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해석한 산물에 불과하다.

찰스의 흑인성이 퀜튼의 관점주의 소산이라는 점은 역으로 찰스의 흑인성이 퀜튼의 사유방식을 드러낸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바바라 래드(Barbara Ladd)는 찰스를 흑인으로 규정하는 유일한 인물이 퀜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미국의 팽창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찰스의 흑인성은 그가 크리올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한다.[8] 원래 인종과 무관하게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던 크리올은 이후 제국주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순수 백인 혈통 여부가 크리올의 필수조건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아이티 폭동 이후 흑인과 뮬레토의 위험성이 증폭되자 크리올은 모두 흑인으로 재규정된다. 특히 남북전쟁 후 인종간의 평등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서, 크리올은 남부인의 혐오감과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백인 크리올은 인정될 수 없었다(Ladd 535-38). 이와 같이 찰스와 같은 크리올을 흑인으로 규정하는 퀜튼의 태도는 인종을 위계질서화 함으로써 백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인종주의를 재편하려는 남부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 *헨리는 권총을 바라본다. 이제 헨리의 숨은 헐떡이고 몸은 떨린다. 헨리의 목소리는 날숨이면서 숨 막힐 듯 한입 가득한 들숨 그 자체이기도 하다.*
>
> *—형.*
>
> *—아니, 난 네 동생과 자려는 흑인이야. 날 막지 않으면, 헨리.*

> *Henry looks at the pistol; now he is not only panting, he is trembling; when he speaks now his voice is not even the exhalation, it is the suffused and suffocating inbreath itself:*

8) 찰스의 외조모가 스페인계 백인과 흑인간의 혼혈이란 사실 외에 외조부가 사탕수수 대농장주라는 사실은 찰스가 귀족 출신의 크리올임을 뒷받침한다.

—*You are my brother.*

—*No I'm not. I'm the nigger that's going to sleep with your sister. Unless you stop me, Henry.* (*AA* 286, 원문강조)

퀜튼은 헨리가 찰스를 살해한 이유를 찰스의 흑인성에서 찾는다.[9] 퀜튼에 의하면 헨리는 찰스와 쥬디스와의 "근친상간보다 흑백간의 결혼을 참지 못해"(*AA* 285) 찰스를 살해한다. 이처럼 찰스와 같은 크리올을 흑인성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태도는, 근친상간보다 흑백간의 결합을 더욱 두려워하던 당시 미국 남부사회의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올 찰스는 섯펜에게 "집과 가족,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AA* 245)와 같은 존재일 뿐, 결코 백인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지적처럼 백인의 타자인 흑인은 생물학적으로 흑인일 뿐만 아니라 백인과의 관계에서 흑인으로 정의된다(108). 백인의 지배권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는 '한 방울 법칙'(one-drop rule)에 따라 단 한 방울의 흑인 피가 섞여있어도 모두 흑인으로 규정되어 배제된다. 그 결과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에 나오는 "흑인처럼 말하는"(*SF* 120) 시골뜨기 헨리보다도 더 귀족적이고 "세계시민다운"(*AA* 252) 찰스는 섯펜이라는 백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흑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찰스를 흑인으로 규정하는 퀜튼에는 남부 백인의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열망과 소명의식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Ladd 542).

퀜튼이 미국 남부사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인물이라는 점은 퀜튼의 목소리가 "아버지처럼"(*AA* 210) 동일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답습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제이슨과 퀜튼 부자, 나아가 슈리브가 "말하고 듣기의 행복한 결합"(happy marriage of speaking and hearing, *AA* 253)을 통해 공유하고 구현하는 세계는 단일음성을 지향한다. 단일음성을 지향하는 퀜튼과 슈리브는 모두 아버지와 같은 목소리를 낸다(Maybe we are both Father, *AA*

9) 헨리가 찰스를 살해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유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유를 제시한다. 헨리의 이모 로자(Rosa Coldfield)는 찰스의 죽음을 섯펜의 악마적 성격 탓으로, 제이슨은 찰스의 성격 탓으로 간주한다. 쥬디스와 찰스의 파혼 이유에 관해서도 제이슨은 찰스의 중혼(bigamy)으로, 퀜튼은 찰스의 흑인성으로 설명한다.

210). 따라서 "잠깐"(*AA* 143), "그렇지 그래"(*AA* 143)를 연신 외치며, 퀜튼과 슈리브가 공동으로 '창조'하는 섯펜의 과거사에서 퀜튼과 슈리브의 이질적인 목소리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10년 하버드대학교의 기숙사에서 헨리의 궤적을 재구성하는 퀜튼과 슈리브는 1860년의 헨리와 찰스에 중첩된다. 우선 퀜튼과 헨리는 모두 누이, 좀 더 엄밀히 말해 누이의 처녀성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헨리와 찰스 모두 쥬디스를 성적 대상으로 공유하면서도 서로를 욕망한다. 슈리브 또한 퀜튼의 "서방"(*SF* 78)으로 불릴 만큼 퀜튼과 슈리브의 관계 역시 헨리와 찰스처럼 동성애적이다. 찰스와 헨리의 "행복한 결합"이 쥬디스라는 "빈 그릇"(empty vessel, *AA* 95)을 통해 가능했다면, 퀜튼과 슈리브의 "행복한 결합"은 남부라는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결과 1910년 퀜튼과 슈리브가 이야기를 공유하는 "매사추세츠주의 무덤 같은 방에 (두 명이 아니라) 네 명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1910년 뉴올리언즈의 그 방에도 네 명이 있는" 것과 같다(*AA* 268). 이제 "말하고 듣기의 행복한 결합"을 통해 재구성되고 창조된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의 신뢰성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부사회의 동일자 논리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미국 남부사회의 정신이 단일 음성적으로 전달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남성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이다. 남성화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공히 경제적 가치로 점철되어 있다. '약속어음'이나 '회계장부', '부기대장'처럼 소유와 지배에 사로잡혀있는 남성의 언어는 인간관계는 물론, 종교와 감정, 도덕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다[10]. 섯펜은 아내와 자식을 "철저히 재산"(*AA* 91)으로 취급하고[11], "도덕이란 (정신적) 요소는 케이크나 파이를 만드는 재

10) 언어의 경제적 가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부기대장이다. 윌랄리아의 변호사가 섯펜에 복수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한 부기대장에 의하면 아들 헨리의 탄생은 "실질가치는 확실치 않으나 가옥과 토지의 경매 가격과 수확고를 합한 것에서 자식 몫으로 4분의 1을 뺀 가격"(*AA* 241)과 동일하다.

11) 섯펜은 아들 찰스에게 '상품'(goods)이란 의미의 본(Bon)이란 이름을 지어준다. 섯펜은 "자신의 이름이나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또 세상의 관례대로 버림받은 여자 [윌랄리아]에게 성급히 남편을 구해주고 아이에게 정식으로 새 아버지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거부하고"(*AA* 214) 직접 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는데, 이는 섯펜이 자신의 핏줄을 철저히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임을 드러낸다. 본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말장난(pun)은 본의 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의

료와 같아서 일단 어림잡아 보고 저울에 달아 잘 섞어서 오븐에 넣으면 케이크나 파이가 되어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AA* 211-12). 이처럼 남성화자의 언어는 도덕과 종교,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고 수지균형을 맞추는 부기대장의 대차 관계로 가득하다. 그러나 부기대장에 나타나는 "남근의 논리"는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주체를 추상화하는 한편 그 객체를 숫자놀음으로 치환해버리는 위험성을 내포한다(Kauffman 267). 그 결과 섯펜의 과거사를 재구성하는 남성화자의 이야기는 사건의 총체라는 개념으로 추상화되면서 거대역사가 된다. 대문자 역사(History/Geschichte)는 소문자 역사(history)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전체화하면서 문자 그대로 보편역사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보편역사의 특징은 여러 사건들(역사들)을 총체화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보편역사의 운동방식이다. 로버트 영(Robert Young)에 의하면 보편역사는 대문자 역사가 소문자 역사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문자 역사는 동일자에 중심을 두고 타자를 정복하는, 동일자와 타자의 변증법적 관계를 드러낸다(4). 타자에 대한 공포심에서 동일자는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를 타자로 규정하여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일자와 타자간의 위계질서가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양자 간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컴슨과 퀜튼이 아버지의 논리로 재구성한 남부의 (대문자) 역사에 이질적인 목소리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란 쉽지 않다. 설사 로자(Rasa Coldfield)나 가난한 백인 워시(Wash Jones)의 경우처럼 퀜튼이 전하는 보편역사와 사뭇 이질적인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예측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AA* 221)는 이유로 폄하되거나 배제된다. "나는 봤어"(I saw, *AA* 12)라는 말로 시작하는 로자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진실성을 강조하지만, 남성

손자 짐(Jim Bon)은 발음은 동일하지만 철자가 다른 짐(Jim Bond)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속박'이면서 동시에 '계약'을 의미하는 본(Bond)이라는 이름은 짐이 순수 혈통의 백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흑인' 짐의 구속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섯펜은 아내 엘런을 선택할 때에도 "멤피스 시장에서 가축이나 노예를 사는 것"처럼 거래한다(*AA* 31). 찰스를 살해하고 적자 헨리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백인가부장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버리지 못한 섯펜은 가난한 백인 워시 존스(Wash Jones)의 손녀 밀리(Milly Jones)를 "싸구려 리본과 구슬"(*AA* 149)로 유혹하여 딸을 얻지만, 종국엔 밀리를 암말보다 못한 존재로 치부한다.

화자의 이야기와 달리 감정적이고 논리적 연관관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진실성이 반감된다. 가난한 백인 워시는 섯펜이라는 동일자의 논리에 함몰되는 우를 범하지만, 종국엔 손녀딸 밀리를 암말 취급하는 섯펜을 살해한 후 인종과 계급질서가 명백한 남부사회에 대한 각성을 하지만, 그 자신의 넋두리처럼 "마른 콩깍지처럼"(*AA* 233) 사라지고 만다.

마지막으로 남부의 역사와 정신을 구현하는 포크너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티븐 로스(Stephen M. Ross)가 지적하듯이 미국 남부의 전통적인 수사는 기본적으로 단일 목소리를 지향한다(78). 이는 『소리와 분노』와 『압살롬, 압살롬!』 공히 모든 목소리가 종국엔 하나의 소리로 향한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소리와 분노』의 「부록」을 집필하고, 『압살롬, 압살롬!』의 말미에 연대기와 지도를 삽입하는 포크너의 행위는 모두 "부재하는" 중심인 캐디와 섯펜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질적 목소리를 단일음성으로 통합하고 총체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크너의 전략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해서 오히려 화자와 저자의 목소리가 대화적으로 충돌하는 헤테로글로시아의 세계를 드러낸다. 포크너는 「부록」에서 본문과 어그러지는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써[12] 오히려 저자의 특권적인 위치를 와해하고 화자와 저자의 목소리에 경쟁을 유발한다. 특히 두 작품의 주요 화자이자 청자인 퀜튼은 하버드대학생으로서 가족의 영웅이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등한시하는 인물[13]이라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약화된다. 이로써 합리성의 타자인 벤지의 목소리가, 성의 타자인 캐디와 로자의 목소리가, 인종적 타자인 찰스와 계급의 타자인 워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틈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독자의 역

12) 포크너는 「부록」에서 퀜튼을 죽음을 사랑한 인물로, 캐디를 불운이란 운명을 타고난 인물로, 제이슨 4세를 컴슨 가문 이래 가장 이성적인 인물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퀜튼은 죽음이 아니라 누이 캐디와 가문의 명예를 사랑한 인물이며, 캐디는 사랑이 넘치는 수여자(giver)이다. 제이슨 역시 가장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자금의 투자에 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비이성적인 인물에 가깝다.

13) 어릴 적부터 수업보다는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수업마침 종을 셈하는 데 열중했던 퀜튼은 하버드대학생이 된 뒤에도 학장에게 주의를 받을 만큼 무단결석이 잦은 인물이다. 벤지의 목장을 팔아서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으로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한 퀜튼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자신을 모범생으로 간주하는 주변 인물들의 인식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급기야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할이다. 이질적이고 상호 충돌하는 여러 소리에서 보다 진실한 소리를 선별하고자하는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총체화 방식을 따르면서 또 스스로 이를 전복하는 포크너의 전략과 함께 그동안 단일음성적인 남부 역사에 가려졌던 소역사들의 이야기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Ⅳ. 나가는 말

『소리와 분노』와 『압살롬, 압살롬!』의 주요 화자이자 청자인 퀜튼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에 대한 고착이라는 점이다. 매사에 시간을 확인하고 째깍대는 시계소리와 때마다 알려주는 종소리에 집착하고 "창틀 그림자가 커튼에 나타나면 일곱 시와 여덟시 사이"(*SF* 76)라는 것을 알 정도로 퀜튼이 시간에 민감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한 상실감 때문이다. 퀜튼의 상실감은 개인적으로 캐디의 처녀성 상실에서 비롯하지만, 이는 곧 남부 귀족 가문의 몰락, 나아가 남북전쟁 이후 남부사회 전체의 상실감과도 관련이 있다. 남부인들이 "식탁에 박혀 있는 총알을 보면서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하는"(*AA* 289) 것 역시 바로 남북전쟁 패전에서 비롯한 상실감이다. 바로 이러한 상실감에서 퀜튼은 시간을 "희망과 욕망의 무덤"(*SF* 76)으로 인식하고, 현실에서 추상화된 언어의 세계로 도피한다. 퀜튼은 "화장대 모서리에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시계) 유리를 툭 쳐서 깨진 조각을 ... 재떨이에 버리고 시계 바늘도 비틀어 재떨이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미래를 향해 "기계적으로 전진하는"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려 한다(*SF* 80, 83) 그러나 "시간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겨본 적이 없다"(*SF* 76)는 아버지 제이슨의 경고처럼, "인간은 (시간이라는) 불운의 총화"(104)라는 아버지의 탄식처럼, 시간과의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퀜튼은 끝내 자살을 시도한다.

무엇보다 퀜튼 비극의 특성은 "간접적"(*SF* 116)이라는 데에 있다. 퀜튼이 아버지의 논리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답습하면서 추상적인 언어의 세계로 도피했다는 것은 퀜튼 비극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따라서 '하나의 남부'라는 기치 아래 퀜튼이 재구성한 남부의 역사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워런

서스먼(Warren Susman)이 지적하듯이 “신화적이건 이데올로기적이건, 좋건 싫건 역사는 끊임없이 이용되기”(49) 때문이다. 원래 역사라는 말이 (실제) “사건”과 (상상된) “이야기”라는 다소 상반된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은 (Williams 146), 역사가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 주관적 창조물에 가깝다는 점을 보다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렇다면 역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누가 쓴 역사인지 그 주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는 현재와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고찰의 중요성은 배가된다. 따라서 하나의 남부를 지향하는 동일자의 논리에 따라 퀜튼과 슈리브가 재구성한 역사를 맹신하지 않고 보다 비판적인 자세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진실성이 내용이 아니라 창조되고 공유되는 과정에 있다면(Matthews 586), 과거지사를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화자와 또 이들 화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청자와 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화자와 청자, 그리고 독자와의 대화적 관계는 동일자 역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반성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남부’가 아닌 ‘여러 가지 남부’를 발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인 용 문 헌

니체, 프리드리히. 『권력에의 의지』. 강수남 역. 서울: 청하, 1988.

Bakhtin, Mikhail. *The Diao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Trans.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oquist. Ed. Michael Holoquist. Austin: U of Texas P, 1984.

Benjamin, Walter. *Illuminations*. Ed. Hannah Arendt.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1969.

Brooks, Cleanth. *William Faulkner: The Yoknapatawpha County.*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1991.

Burton, Stacy. "Rereading Faulkner: Authority, Criticism, and *The Sound and the Fury*." *Modern Philosophy* 98.4 (May 2001): 604-28.

Cash. W. J. *The Mind of the South*. New York: Vintage, 1968.

Cowley, Malcolm. *The Portable Faulkner.* New York: Penguin, 2003.

Fanon, Frantz. "The Fact of Blackness." *Anatomy of Racism*. Ed. David Theo Goldberg.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90. 108-26.

Faust, Drew Gilpin. "A Southern Stewardship: The Intellectual and the Proslavery Argument." *American Quarterly* 31.1 (Spring 1979): 63-80.

Faulkner, William. *The Sound and the Fury*. New York: Vintage, 1990.

_____. *Absalom, Absalom!* New York: Vintage, 1990.

_____. *As I Lay Dying*. New York: Vintage, 1985.

Foucault, Michel. "The Order of Discourse." *Untying the Text.* Ed. Robert Young. Boston: Routledge, 1981. 48-78.

Hale, Grace Elizabeth. *Making Whiteness: The Culture of Segregation in the South, 1890-1940*. New York: Vintage, 1999.

Hodgson, John A. "Logical Sequence and Continuity: Some Observations on the Typographical and Structural Consistency of *Absalom, Absalom*!" *American Literature* 43.1 (March 1971): 97-107.

Kauffman, Linda S. *Discourses of Desire: Gender, Genre, and Epistolary Fictions.*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1988.

Ladd, Barbara. "The Direction of the Howling: Nationalism and the Color Line in *Absalom, Absalom*!" *American Literature* 66.3 (Sep. 1994): 525-51.

Matthews, John T. "The Marriage of Speaking and Hearing in *Absalom, Absalom!*" *ELH* 47.3 (Autumn 1980): 575-94.

Ross, Stephen M. "Oratory and the Dialogical in *Absalom, Absalom!*." *Intertextuality in Faulkner.* Ed. Michel Gresset and Noel Polk. Jackson: UP of Mississippi, 1985. 73-86.

Susman, Warren I. *Culture As History: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Society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Pantheon, 1984.

Williams, Raymond. *Keywords*. London: Flamingo, 1983.

Woodward, C. Vann. *The Strange Career of Jim Crow.* Oxford: Oxford UP, 1971.

Young, Robert. "White Mythologies."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London: Routledge, 1996. 1-20.

Abstract

Quentin Compson and the Mind of the South in William Faulkner's *The Sound and the Fury* and *Absalom, Absalom!*

Kang, Jihyun

The One South myth emphasizes that the South is homogeneous and monological even though the South is heterogeneous and multiple-voiced. In a way, the One South has become the standard for understanding the Southern identity since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Crafting the old plantation days into a golden age of perfect race, class, and gender harmony, the boom in Old South nostalgia and sentimentality began as Southern oratory in order to justify the lost cause of the Civil War and to make the freed blacks know their inferior place. William Faulkner, as an American writer situated in the South, tries to trace and represent the mind of the South that has a fairly definite mental system. Most importantly, the mind of the South is continuous with the past. William Faulkner uses the past very uniquely in a way that the past is an inescapable part of the present and that the present grows out of the past. Many characters in his novels are obsessed with a personal, family, or regional pas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trapped in the past they cannot escape from at all.

Quentin Compson, one of main narrators in *The Sound and the Fury* and *Absalom, Absalom!*, shows why the South is obsessed with the inescapable past and how the South tries to escape from it. In *The Sound and the Fury*, Quentin tries in vain to redeem the fallen honor of his family and the

South. Transplanted from Mississippi to Massachusetts, Quentin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racial etiquette. The awareness of socially constructed Southern racism stops Quentin from figuring out who he is. Two different Quentins, a Southern gentleman from Mississippi and a Harvard student in Massachusetts at the same time, is consumed by the past. Quentin is deeply engaged in the recre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he past in *Absalom, Absalom!*. As far as the white South goes, history is not only a time but also a cultural space in which it crafts a new southern order. Quentin and his roommate Shreve McCannon reconstruct Thomas Sutpen's pas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father. Their monological reconstruction reveals how the Southern History is established while the other's histories are erased.

Key words: William Faulkner, Quentin Compson, The Mind of the South, historiography, dialogism
윌리엄 포크너, 퀜튼 컴슨, 남부의 정신, 역사기록학, 대화주의

논문접수일: 2012. 11. 11
심사완료일: 2012. 12. 04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강지현
소속: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주소: (137-788)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40, 503-804호
이메일: junokang@hotmail.com